

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되나

광주시장 직속 혁신추진위, 광주시에 권고 기능 중복·유사 단체 통폐합·구조조정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 가이드라인 제시



광주시장 직속 혁신추진위원회 주정민 위원장과 이성숙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관·단체 통폐합 등 강도높은 혁신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관·단체 통폐합 등 강도높은 혁신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관·단체 통폐합 등 강도높은 혁신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관·단체 통폐합 등 강도높은 혁신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곳 중 여러 기능이 중복된다고 판단했다.

혁신추진위는 권고대로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혁신추진위는 공공기관 경영과 기관장 평가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외부평가와 시민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도 외부에 공개토록 했다.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아웃(One Out)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광주시 주관하에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면접위원 인력풀제와 외부위원 60% 이상 위촉, 인턴 채용절차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합심 의기구 설치 등도 제안했다.

직원 인사의 공정성 강화와 성과 중심 조직운영을 위해 간부 승진시 직위면담평가제 등을 실시하고, 일과 성과 기반 인사평정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표준운영비제도 도입과 시민 대상 정보공개 범위 확대, 재정정보공개 정제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동안 적폐로 지목돼 온 퇴직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시 분청 간부의 무분별한 파견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최근 언론과 감사 결과 등을 통해 비취진 공공기관의 모습은 채용·인사 비리, 성추행, 부조리한 조직운영 등으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권고문을 광주시장에게 전달한 뒤 올해 상반기 중에 이행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더이상 방치 안돼" 광주시교육청, 교육 현장 '친일 잔재' 첫 전수조사

광주 교육 현장 곳곳에 친일 잔재물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광주시교육청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친일 잔재 청산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금명간 '광주 친일 잔재 조사 및 청산 TF팀'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TF팀은 10명 안팎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역사교사모임, 광복회 광주시, 대학과 일선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TF팀은 교육청과 단위 학교 차원의 청산계획 수립과 지원, 자료 수집·분석·정리, 보존·활용 방안 마련, 관련 컨설팅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중으로 교가와 교표, 교기 교목 등 학교 상징물은 물론 기념비나 시설 등에 대한 1차 기초 조사를 마친 뒤 3월부터 8월까지 구체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각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학교역사관'에 친일 잔재 관련 자료를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특정 인물이나 상징물 부각 차원에서 벗어나 친일 관련 자료 수집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친일 잔재 청산은 지난 2016년 친일 인사 김백일 일 본식 이름 개제와 도시미나리, 1917~1961의 이름을 따 논란이 된 백일초의 교명을 성진초로 개명하는 등 주로 파편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전수조사나 다름없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청산작업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당국의 '친일 흔적지우기'는 광주시 의뢰로 광주교대 산하협력단이 진행해온 친일 잔재 조사용역 결과와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등을 근거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실태 조사와 변경 과정에서 졸업생과 동창회, 학부모, 학교 법인 등 각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적극적인 지지를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변경 과정에서 일부 갈등도 전면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또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아예 남아 있지 않거나 사료적 가치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방치돼온 기록과 물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증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과 연계해 독립운동과 식민 잔재 청산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유도하고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동구, 장애인·다문화가정에 도심힐링 기회 제공

광주 동구 지원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종태)는 18일 장애인·다문화가정과 함께 1박2일 간 '쉼(休)으로의 초대'를 진행한다.

'쉼(休)으로의 초대'는 평소 힐링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다문화가정이 멀리 떠나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1박 2일간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은 전문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한 뒤 영화관에서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고 근처 한식당에서 저녁식사를 즐긴 후 관광호텔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서구, 일회용품 NO! 머그컵 OK! 캠페인

광주 서구는 지난 16일 오전시간 청사 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NO 머그컵OK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컵(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은 청사 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직원과 주민들에게 주문한 음료를 머그컵에 담아서 증정하는 이벤트와 일회용품 없는 사무환경 만들기 서명운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사 내 카페에서는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가지고 올 경우 음료 가격을 100원 할인해 주고있다.

남구, 독거노인·장애인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광주 남구는 가스 취급 부주의로 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홀로사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17일 '건망증 등 노인성 기억장애와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구는 올해 예산 1,000만원을 투입,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와 1~6급 장애인 세대 등 총 200가구에 가스 안전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관내 대상 가구 중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북구, 132억 투입해 노인일자리 4776명 제공

광주 북구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광주 북구는 오는 25일까지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올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32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1개 수행기관에서 47개 사업단을 구성, 지난해 대비 1.137% 늘어난 4,77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시장형은 만 60세 이상)이며 참여 신청서, 주민등록본, 신분증을 준비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광산구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 2개 국어 서류 비치

광산구 월곡동 행정복지센터가 러시아어·베트남어로 된 체류지 변경신고서 작성 편람을 비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의 관련 서류 작성을 돕고 있다.

광산구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는 1만5천여 명으로 이는 광주 거주 전체 외국인의 88%에 해당한다. 이중 베트남 국적은 2,366명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어 사용 외국인이 2,047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월곡동 주변에는 고려인마을이 있고, 베트남 국적 사람들도 다수 살고 있어서, 그동안 해당 언어로 민원을 처리하려는 외국인주민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동 행정복지센터 유정수 주무관은 이점을 감안, 외국인주민이 두 언어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편람 제작을 주도했다.

임형택 기자

광주 노동계도 '광주형 일자리' 협상 시동

한노총 광주본부 협상 전권 윤종해 의장에 위임키로

연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회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용섭 광주시장의 '광주형 일자리'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지역 노동계도 협상 테이블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입단협 유예 조항에 대해서는 지역 노동계가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노사민정 간 대타협이 요구된다.

한노총 광주지역분부는 17일 오전 본부에서 운영위원회를 갖고 광주형 일자리 협상 전권을 윤종해

광주지역본부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윤 의장에게 전권을 위임했으나 타결이 무산된 만큼 올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다시 위임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입단협 5년 유예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입단협을 유예한다는 협약 조항에 대해 강한 거

부감을 보여왔다.

현대차가 연간 7만대 생산판매를 보증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5년 간 입단협을 유예하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입단협이 유예될 경우 임금은 5년간 동결될 가능성이 크고, 노조 설립도 어려울 수 있다.

윤종해 의장은 "오늘 협상 전권을 다시 위임받은 것은 노동계도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며 "입단협 유예 기간을 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 받아들일 수 없다. 아직 협상 전이라 절충안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8년 단 10213상속한정승인
 사망자: 유영진(580209-1637915)
 최후주소: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7-9, 108동 1005호(죽림휴먼시아)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715번지

위망 유영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월 18일

공고인: 유영화
 주소: 여수시 상암로 16, 102동 1104호(문덕동, 라온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1월 16일
 공고기간: 2019. 1. 18~ 2019. 3. 19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8년 단 1755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강철원(770110-1634716)
 최후주소: 여수시 여문2로 62, 1001동 1501호(문수동, 부영아파트)

위망 강철원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월 18일

공고인: 1.권영선 2.강수지 3.강현준 4.강수아
 (청구인 2,3,4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권영선)
 주소: 여수시 여문2로 62, 1001동 1501호(문수동, 부영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1월 16일
 공고기간: 2019. 1. 18~ 2019. 3. 19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Fax: 062-222-5548
 홈페이지: www.ihonam.com